



한·미 FTA 제7차 협상 결과(농업 및 SPS 분야)

농림부

□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4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·미 FTA 제7차 협상이 개최되었다.

- 농업분과 협상은 2월 12일(월)~14일(수) 3일간, 위생 및 검역(SPS) 분과 협상은 2월 13일(화)에 진행됐다.
- 제8차 협상은 3월 8일~12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.

□ 이번 협상에서 농업 분과는 상호 기대하고 있는 양허수준의 차이를 적극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했으나, 민감성이 낮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.

- 민감품목에 대해 다양한 양허방안을 논의했으나 기대수준의 차이가 여전히 큼을 확인하는데 그쳤다. 특히, 미국은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견지하며, 자국 관심품목의 경우 의미 있는 시장접근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.
- 농산물 세이프가드 및 수입쿼타(TRQ)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세부 사항

에 있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.

- 다만, 이번 협상에서 집중적인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향후 상호 대안 모색의 계기를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.

□ 위생 및 검역(SPS) 분과는 FTA 체결 이후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채널의 형식 및 운영방식 등을 위주로 협의하여 어느 정도의 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.

- 우리측이 절충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협의를 지속키로 했다.

□ 앞으로 협상 속도 가속화에 대비하여 7차 협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민감품목에 대한 합의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, 농산물 세이프가드 및 수입쿼타(TRQ)에 대해서는 양측 입장을 절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.

-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해 농업계 및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